

## 철학사

### 59 헤겔의 절대정신에 대한 고찰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다시 헤겔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헤겔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가 해석된 방식 때문에 곧바로 이어진 몇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방금 수업 전에 나눈 대화를 통해 헤겔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해석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해석은 헤겔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미권에서는 오랫동안 헤겔을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주의자가 사변적 형이상학을 연역적으로 도출해내려 했던 인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

다시 말해,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도했던 것을 헤겔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도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사변적 형이상학자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유럽에서 현상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현상학의 근원이 된 헤겔의 사상과 훨씬 더 부합하는 대안적 해석이 등장했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이러한 해석을 제시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즉, 그의 대표작인 『정신현상학』의 제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합리주의 체계를 구축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실재는 이성이고 이성은 실재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또 다른 사변적 형이상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20세기에 이해되어 온 현상학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상, 즉 존재의 의식을 묘사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의식 수준에서는 당신과 나의 존재의 의식이고, 사회적 수준에서는 한 국가의 존재의 의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절대자의 존재 의식에 관해서 말하자면, 아마도 이 마지막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존재 의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물론 20세기 현상학의 중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장 폴 사르트르와 실존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헤겔이 추구한 것은 자아의 자기의식, 즉 존재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과 하인의 관계나 인간관계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회의론자, 불행한 의식 등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성찰의 움직임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객관적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법과 헌정 정부라는 개념에 비추어 국가적 자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절대 정신, 즉 오늘날 우리가 다루는 부분에 이르면 세 번째 구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의식입니다. 유대교나 기독교의 신학적 언어로 이에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지식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로 신학자들은 신에 대한 지식, 즉 우리가 신을 아는 방식이 아니라 신이 스스로를 아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신의 자기 인식 말입니다. 헤겔은 과정 형이상학자이기 때문에, 신의 자기 인식을 진화하는 신의 인식이 아니라, 신이 창조하는 세계 안에서, 즉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객관화되는 신의 자기 인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기 인식이 우리의 자기 인식, 즉 주관적인 정신 속에서 먼저 드러난다고 봅니다. 잠시 후 그의 종교와 신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우리의 자의식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의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의식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존재라면, 나의 의식은 신의 의식의 유한한 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의식 또한 신의 자의식의 유한한 한 순간입니다. 따라서 신이 자신을 아는 것은 우리 자신, 즉 우리의 자의식, 우리의 의식적 존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신의 자의식은, 말하자면, 자신이 창조한 자연 세계에 대한 그의 사유 속에서 객관화됩니다. 중세 전통에서는 자연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신의 다면적인 완전함을 반영한다고 여겼고, 우리가 자연을 관조함으로써 신의 완전함을 관조하게 된다면, 신 또한 자신의 창조물을 관조함으로써 자신을 관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의 자기 인식, 즉 신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가장 완전하게 표현되고 발전하고 드러나는 것은 사고의 형식과 논리가 자연의 본질과 융합될 때입니다. 주관적인 정신의 상상력과 창의성 덕분에, 즉 민족정신의 존재의식의 한 부분으로서, 신은 다양한 문화의 예술, 다양한

문화의 종교,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주관성, 창의성, 상상력이 국가적 의식의 맥락 속에서 예술, 종교, 철학을 낳습니다. 이러한 창조적 표현은 단순히 인간 정신의 창조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은 신성한 순간이기도 하므로, 신성한 정신의 창조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식을 묘사하는 현상학이 있는데, 존재의 의식에 대한 현상학은 절대 정신의 이러한 발현 속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 의식을 묘사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만약 신의 자의식이 우리의 자의식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 드러나며, 신의 창조력이 우리의 창조력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발휘된다면, 예술의 세계에서 신의 자의식은 인간 정신의 또 다른 창조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헤겔을 읽어보면, 그는 현상을 묘사하는 현상학적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들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을 관찰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체계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성찰적 관찰이자 역사적 관찰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신성한 영의 활동인 만큼, 그의 예술, 종교, 철학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절대자의 움직임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창조적 표현의 역사 속에서이기 때문입니다.

네, 잘 전달되었나요? 저는 잘 전달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거의 매일 헤겔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일? 신은 우리와는 별개로 자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와는 별개로요? 신은 우리와는 별개로 자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헤겔이 뭐라고 했을지는 모르겠네요. 헤겔은 자의식에 대해 강조했으니까요. 그 현상학은 우리 안팎에서 드러나는 그의 자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신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루터교 신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교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그 점이 그를 범신론자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가 범신론자가 아니라 범신론자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케일, 모든 것이 신 안에 있지만 신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다면, 신에게는 우리 개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식이 아닌, 그 밖의 어떤 자의식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이해되지요?

아니면 창조라는 행위 자체가 신의 의식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신은 후자라고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렇게 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면 남은 질문에 대한 신의 대답은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 어느 시점이든, 신은 여전히 더 많은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신이 더 많은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요점은 의식이 과정이라면, 그리고 칸트처럼 시간이 의식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신적인 존재와 신적인 의식이 존재하는 한, 역사 속에서 더 많은 의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성한 의식이 항상 창조물 안에, 그리고 창조물을 통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가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은 찾지 못했지만, 선불리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덧붙일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의식에 대해 무언가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창조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오직 창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알 길이 없는 의식의 나머지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절대정신의 역사적 전개에서 정반합의 삼위일체는 예술, 종교, 철학에 모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헤겔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는 문학가들이 철학적인 논의를 할 때, 문학과 철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헤겔은 그 차이를 표현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방식의 차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예술은 이미지를, 예술적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물론이죠. 오늘날에도 문학계에서는 작가가 자신이 사용했던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미술학과 회화과 교수인 조엘 세즐리도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는 최근 시카고 리버 노스 지역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저희도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는 마치 잘려나가고 잘려나간 듯한 교외

풍경 이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조엘 세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그런 시각적 이미지들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 했는지 알 겁니다.

즉, 교외 생활의 불완전함과 빈약함은 전체 이야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 그의 최근 전시는 라틴 아메리카의 빈곤을 주제로 한 일련의 그림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살펴보세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이죠 . 시인은 언어적 이미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골짜기 를 떠도는 외로운 구름처럼 . 삶에 대한 낭만주의적 비전을 이야기하는 이미지들 .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술의 본질입니다. 독일어 단어 '빌트(Bild)'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자, 당연히 '이미지'라는 용어는 '상상력'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술가의 고유한 활동은 무엇일까요? 물감을 칠하는 기술보다는 다른 측면이 더 강합니다 .

이미지를 떠올리는 데 있어서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낭만주의 예술관입니다.

인간 정신의 표현. 상상 속에서 상상하라. 그리고 그에 따라 그는 예술사의 전개를 추적해 나간다.

그런 종류의 것들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집트 미술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이집트 미술은 더욱 종교적이고 상징적이었습니다.

고전 예술은 합리적인 조화와 질서를 더욱 강조합니다. 반면 낭만 예술은 상상력 넘치는 표현 속에서 질서를 초월합니다. 예술이 스스로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가 점차 드러납니다.

의식 있는 존재. 그리고 종교는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스텔룸에게 있어서 그것은 표현입니다.

현실을 대신하는 관념입니다 .

헤겔이 '상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상징적 표현, 회화적 표현. 따라서 종교적 언어는 상징적인 이야기의 언어입니다.

꼭 우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적 이야기, 신화 등도 가능합니다.

'신화'라는 용어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신화는 종교적 의미를 지닌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적 표현 형식은 회화적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 등등. 그래서 그는 종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상징적 표현으로 말이죠.

그는 종교적 표현의 역사를 동양 종교에서부터 추적하는데, 동양 종교는 대체로 범신론적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였다. 다신론적인 그리스 종교에는 그와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스 종교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며, 그 신들은 유한하다.

기독교는 삼위일체론을 믿습니다.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과 유한한 신성을 결합시킨 신앙입니다.

무한한 영이 역사 전체에 현현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성육신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 모든 일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다. 그래서 그는 삼위일체 기독교를 종교의 가장 고귀한 표현으로 여긴다. 기독교 신학의 상징들은 적절 하다 .

하지만 역사적 진실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철학에서 순수한 개념을 표현 형식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는 개념을 분석할 때 은유, 이미지, 이야기 등을 피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사고로 개념을 정립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의 기능입니다. 존재의 개념, 즉 베그리프를 다루는 것이죠. 그림이나 이야기, 이미지가 아니라, 비감각적인 방식으로 개념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의식의 표현에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자기표현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인을 통해 드러나는 신성한 의식의 표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헤겔의 종교관에서 무엇이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우선, 그는 내재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에 내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전통적인 유대-기독교 사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창조물과의 수적 구별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라졌다. 신은 임재해 있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행위에 대한 모든 개념은 역사적 진실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상징이나 그림으로 여겨진다.

신의 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의 자기현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해는 그 내면의 자기표현 안에 포함됩니다. 이는 그가 사용하고 후대 작가들이 차용한 '신의 죽음'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월적인 신의 이미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종교 사상의 역사가 전개됨에 따라 그러한 신 개념은 소멸해 갑니다. 둘째로, 그는 다른 종교관들에 대한 비판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슐라이어마허에 대한 그의 비판, 그리고 종교 문제에 대한 칸트에 대한 비판이라고 부르자. 칸트는 종교를 윤리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슐라이어마허는 그 점을 비판했다. 그러나 슐라이어마허는 종교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절대자에 대한 의존감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헤겔은 만약 의존감이 종교의 핵심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생물은 개일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헤겔에게도 유머 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요점은 종교에 대한 그러한 묘사가 현상학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존감 너머에는 예술에 담긴 상상력이 있습니다. 종교 이야기에는 상징적인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신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낳으셨다. 하나님은 만드셨다. 그분은 창조하셨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보시다시피, 종교의 상징성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슐라이어마허의 종교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적 상징들이 철학과 신학에서 개념으로 번역될 수 있고 실제로 번역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철학은 종교가 상징하는 것을 개념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의

역사는 범신론적 존재를 제시하는 헤겔식 이상주의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상징해 온 바를 가장 정확하게 개념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신학적 사고는 상징주의와 그 철학적 개념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상징의 근본적인 의미는 합리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개념들. 바로 이것이 그가 기독교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하나와 다수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점, 그리고 그 합리적인 개념 속에서 초기 그리스 사상의 정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자론과 일원론을 넘어 하나 안에 다수, 셋 안에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헤겔의 종교관에 대해 알아보죠.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트로이, 헤겔의 범재신론이 범신론에 더 가까운 것 같네요.

하지만 기독교 신학자들, 또는 적어도 신학에 관한 글을 쓴 사람들 중에는 범신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기독교 플라톤주의의 일부도 그러했습니다. 플라톤에 대한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질문을 기억하시죠? 그는 이원론자인가, 아니면 관념론자인가? 만약 그가 관념론자라면, 물질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개별체는 물리적 속성을 지닌 형태의 발현일 뿐,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플라톤주의로 해석하면, 그러한 형태의 발현은 하나로부터 발산된 것이며, 범재신론이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말, 르네상스 시대의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 중 일부를 살펴보면, 그들 중 일부는 단순히 기독교 플라톤주의자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발산론을 언급합니다. 즉, 신플라톤주의적 의미에서 관념론자들 이었던 것입니다. 존 밀턴 역시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기독교 신학 저서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론을 이야기합니다.

흥미롭네요. 물론 우리는 밀턴의 『실낙원』을 정통 신학을 다루는 작가의 전형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19세기에는 헤겔의 영향력이 컸고, 기독교 헤겔주의, 기독교 이상주의가 상당히 유행했는데, 이는 범신론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교, 특히 기독교 신학이 버클리 학과처럼 다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유일론적인 관념론적 형이상학과 결합할 때, 결과적으로 범신론이 나온다는 것은 타당한 일반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학을 기독교 신학이라고 부를 건가요, 아니면 범신론적 신학이라고 부를 건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오랜 동료인 스튜 해킷이 내년 이맘때쯤 칸트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논의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논리적으로 유신론자로 환원될 수 있는 다른 사상가들도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체로는 불안정한 입장이다."

그래서, 당신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아마도 '예'일 수도 있고 '아니오'일 수도 있겠네요. 헤겔은 스스로를 기독교 신학자로 여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칼케돈 공의회와 삼위일체 교리를 원래 의도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피노자는 분명 범신론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 관념론자들이 스피노자를 매우 존경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들이 스피노자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스피노자의 범신론에서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스피노자는 정적인 우주와 정적인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켈이 주장하는 '신은 우주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지닌다'는 주장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연과 신은 동일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헤겔의 경우, 과정의 법칙에 따라 신은 우주 역사의 어느 단계에서든 존재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범신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에게는 어느 정도의 주도성, 초월성, 그리고 자유가 부여되는데, 특히 창조 정신으로서의 자유가 그러하다. 반면 스피노자에게 있어 자유라는 개념은 그다지 널리 받아들여지는 용어는 아니다. 그의 주장 중 일부, 특히 "우리의 자의식은 사실 신의 자의식이다"라는 말은 신의 자의식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신비주의, 즉 신비주의자들의 전통을 많이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좀 엉뚱한 생각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제 생각에는 중세 신비주의자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신플라톤주의자였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플라톤주의자들이거나, 유대교 신플라톤주의자들이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슬람적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 헌신 표현은 신과의 재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듯이 단순히 신을 관상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의 신비로운 일체감을 추구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이유로 둘 사이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플라톤주의적이고 일원론적인 이상주의적 뿌리 말이죠. 카를은 어떨까요? 그는 신의 개입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상징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것이 개념 체계 안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성육신을 개입으로, 혹은 어떤 기적적인 행위를 개입으로, 이집트 탈출을 개입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엄청난 상징성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출애굽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세요.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찬송가에서 성육신이나 십자가형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칼,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역사와 신앙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징입니다. 상징은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신앙의 토대가 되는 역사, 즉 신앙이 되돌아보는 역사가 아니라, 이야기의 역사적 사실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키르케고르에 이르러서는 그가 이러한 점을 매우 의식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레싱의 도랑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독일의 레싱은 역사적 진술과 신앙에 대한 진술 사이에 논리적 간극, 즉 도랑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면,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걸쳐 자유주의 신학과 전통 신학 사이의 긴장과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무오류설은 제 생각에 이야기의 역사성을 강조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지만 아니,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졸업생 중 한 명인 스티브 에반스 교수는 예전에 이곳에서 가르치기도 했는데, 작년에 밥 로버츠가 주도하는 퓨 재단의 대규모 연구비 지원 사업에서 10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그는 이 문제와 역사, 그리고 신앙의 관계에 대한 3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음. 예술, 종교, 철학의 체계에서 위계질서가 존재하나요? 예를 들어 예술, 종교, 철학처럼 말이죠? 글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 반, 합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사실 위계질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첫 번째가 두 번째를 대체하고 세 번째가 두 번째를 대체하는 식의 연속적인 사업 관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과 반의 관계는 변증법적 관계에서 정은 논리적으로 반을 함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반합이 합쳐져 합합을 이루는데, 이는 이전의 것을 보존하는 동시에 상쇄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살펴보세요. 이해되지요?

아이, 즉 정언 개념이 어른, 즉 반정언 개념에 의해 부정되고, 그 둘이 나중에 다시 합쳐지는 거죠. 뭐라고 해야 할까요? 노인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두 번째 유년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노년층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식물학적 예를 들어보죠.

점심때쯤 우리 집 앞마당에 크로커스가 피어 있는 걸 봤어요. 크로커스가 아니라 크로키인가요? 라틴어 복수형인 것 같아요. 크로키.

피우는 작은 새싹이다. 하지만 곧 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들은 몇 주 안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종합은 내년에 새로운 반론의 정립 근거가 될 거예요. 하나에서 다른 하나가 자라나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모델이에요. 처음 피는 크로커스는 언제나 한 해 중 가장 아름다워 보이죠. 가늘고 볼품없는 작은 꽃들이요.

좋아요, 또 다른 할 말 있나요, 데이비드? 그의 철학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아, 그는 그리스 사상부터 중세 사상, 계몽주의 사상, 그리고 헤겔 철학의 대종합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죠. 당대 독일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 있을까요?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억나네요.

아니요, 일단 완전한 종합, 즉 존재의 전체 개념을 얻고 나면, 이제 남은 일은 그 개념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종합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증법적 움직임들을 다듬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의 나머지 역사는 헤겔에 대한 일련의 각주가 될 것입니다.

인가요 ? 원래 이런 식이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이걸 완전히 역사적으로 정리해 보면 예술사, 종교사, 철학사가 나란히 존재하게 됩니다. 예술, 종교, 철학. 이해되지요?

그리고 곳곳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걸 뒤집어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 미술, 그리스 종교, 그리스 철학,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러한 유사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정반합의 과정을 그런 식으로 추적할 수 있죠.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든 마찬가지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모든 변증법적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종교가 예술과 철학의 종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종교 신자들이 바라는 것도 당연히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가 신학이 예술과 철학의 정반대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종교는 그 정반대입니다. 종교적 언어, 즉 예배의 언어, 경건함의 언어와 신학적 언어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적 언어는 정확하게 개념화하려는 언어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찬송가의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오,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안전하게." 반석.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지가 담겨 있죠.

설교자들이 큰 폭풍우 동안 바위 틈새를 숨겨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아시다시피, 더 높은 바위를 말이죠.

공간적인. 그건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신앙심의 언어는 종종 이미지를 담은 예술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사의 언어입니다. 반면에 신학의 언어는 개념 체계의 언어입니다. 서사의 신학적 의미를 해석하는 개념 체계인 것이죠.

종교적 언어와 신학적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다시 말해, 칼케돈 공의회의 언어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의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설교입니다. 보시다시피, 칼케돈 공의회의 언어는 (니케아 공의회가 아니라 칼케돈 공의회라고 말한 이유는)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매우 신중하게 개념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안에는 이야기의 메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도신경은 여전히 종교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또한 그의 외아들이시며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로다.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하지만 그가 다루고 있는 것은 종교적 경건함의 언어, 즉 예술적 언어와 매우 유사한 이미지 사이의 구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이미지들은 이제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개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철학이라고 부르는 영역 안에서도 신학적 개념화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 개념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종합인가요? 신학적 개념화 말이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전체에 의문을 제기 해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신의 의식이 전개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위대한 종합이라는 용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종교적 표현과 신학적 표현 사이에는 일종의 변증법적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는 개념화를 위해 노력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예배에 참석하여 대중 종교의 모든 이미지와 상징이 담긴 찬송가를 부릅니다. 네. 그리고 그 신학자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시다시피, 그의 기도에는 개념화와는 별개로 종교적인 내용이 자주 포함됩니다. 기독교를 개인적인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단순히 개념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격적인 신과 인격적인 신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신이 행하신 방식을 통해 알려졌을 때는, 이야기적인 측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피할 수는 없죠.

자, 그럼 잠시 헤겔 이후의 흐름, 즉 과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겔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를 좌우로 나누는 관점입니다. 좌우 진영은 종교의 진화, 종교의 역사, 그리고 종교의 상징적 본질을 강조합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좌우 진영은 자유주의 신학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슈툼프는 430페이지에서 독일의 성서학자 두 명, 다비드 슈트라우스와 브루노 바우어를 언급합니다. 슈트라우스는 이러한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인물로, 그의 저서 『예수의 생애』에서 신과 인간의 영혼을 동일시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기의식의 투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헤겔이 우리에게 신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신의 자기의식이라고 말한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기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신을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기의식은 신을 사유하는 렌즈가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께 읽어보시도록 부탁드린 학자 중 한 명인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의 저작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매우 생생하네요. 포이어바흐는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다시 말해, 포이어바흐는 유물론자였습니다.

헤겔의 자기의식 변증법과 유물론적 역사 해석을 결합한 유물론자.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그것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켰다. 그래서 포이어바흐의 글에서, 놀랍게도, 그는 인간의 신의식이라는 개념을 언급한다.

헤겔은 인간의 신의식은 신의 자기의식이라고 말했다. 포이어바흐는 인간의 신의식은 인간의 자기의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신의식은 인간의 자기의식이다.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 즉 신에 대한 생각은 우리 자신의 자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에게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속성들을 부여합니다. 결국 신학은 심리학과 인류학을 위장한 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종교의 본질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포이어바흐의 사상은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발전한 종교적 인본주의의 주요 원천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유니티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본주의적 종교입니다. 종교가 인간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종교죠. 포이어바흐는 이러한 생각을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 제가 지금 선집 239번째 구절을 읽고 있습니다. 종교, 적어도 기독교는 인간이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본성과 맺는 관계입니다. 신성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인간은 개인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객관화된다. 또 다른 독립적인 존재로서 관조되고 존경받는다. 그러므로 신성한 본성의 모든 속성은 인간 본성의 속성이기도 하다.

자, 한번 봅시다. 신학을 버릴 때에만, 즉 심리학이나 인류학과 구분되는 신학을 버릴 때에만 250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학 그 자체를 신학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과 인간성의 진정한 자기만족적 동일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인간 자신과의 동일성 말입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 그의 저서 『기독교의 본질』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는 20세기 자연주의 철학 내에서 종교가 발전해 온 배경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연주의 철학 안의 종교 말이죠. 칼 마르크스가 종교를 대중의 아편 이라고 말했다를 때 , 그는 포이어바흐의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상과 욕망을 승화시키는 한 형태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그러한 이상과 욕망을 가상의 신화적 존재에게 투영하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적 상징은 신에 대한 언어로 번역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필요에 대한 언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다룰 곳은 종교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헤겔주의 종교 사상의 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우파는 본질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정통적이며  
, 헤겔의 관념론과 범신론을 유지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통적인 관점을 고수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후기 관념론자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한, 구 헤겔주의자와 신 헤겔주의자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전 헤겔주의자들은 해석에 있어 다소 보수적이지만, 헤겔이 철학을  
최고의 경지로 이끌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 바로 19세기의 진화론적  
이상주의 말이죠. 헤겔 철학은 아마도 모든 체계를 종결짓는 궁극적인  
체계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범위한 신헤겔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역 , 특히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을 장악했고, 미국에서는 세인트루이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세인트루이스 학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그 점을 언급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 사실  
다음번에 말이죠. 그건 젊은 헤겔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에게 이론적, 철학적 개념화, 체계 구축, 이론적 작업을 맡기고 , 헤겔  
사상에 내재된 행동으로 눈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통용되는 용어를 빌리자면, 헤겔 사상에 내재된 실천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실천의 목적은 세계를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 다시 말해,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 속에서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것. 짐작하시겠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바로 이러한 젊은 헤겔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840년대에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물론은  
포이어바흐에게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즐겨 쓰던 표현을 빌리자면  
헤겔의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포이어바흐는 헤겔의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신의식이 신의 신의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의식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포이어바흐의 이론은 유물론과 헤겔의 논리, 헤겔의 변증법을 결합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적 유물론은 역사적 유물론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유물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역사의 더 초기 단계로의 이전 철학으로 되돌아가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유물론은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입니다.

유물론적 역사 해석. 아시다시피, 역사는 실천, 즉 행위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행위, 즉 실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물론적 역사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은 당연히 변증법적 관점에서 제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변증법은 역사의 정, 반, 합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절대적인 정신이 아니라 역사의 물질적 조건입니다. 따라서 역사는 절대적인 정신의 발현이라고 보는 이상주의적 해석과는 달리, 개념이 역사를 만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물론적 역사 해석에 따르면, 역사를 만드는 것은 물질적 조건입니다. 즉, 생산력과 생산 수단, 다시 말해 경제적 조건이 역사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 결정론, 즉 역사의 원동력인 계급 투쟁이 생겨납니다. 역사의 변화, 계급 투쟁, 정과 반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가 발전해 온 방식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좋아요, 다음번에는 헤겔 외의 19세기 관념론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0명 정도의 목록을 알려드릴게요.